

- 주요 뉴스: 美 9월 소비심리 4개월래 최저. 주요 IB, 연준 금리인하 속도 가속화 예상
 - Fitch, 프랑스 신용등급 'AA-'에서 'A+'로 강등. 등급 전망은 '안정적' 부여
 - 우크라이나, 러시아 석유시설 드론 공습. 미국은 새로운 對러 제재 경고
 - 미국 의회예산국(CBO),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 하향,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소비심리 약화,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보합[+0.02%],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주가는 산업 및 소비재 약세, 기술주 강세 등 혼조, 나스닥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전반적인 관망세 속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다음주 FOMC에서 금리인하 기대 속 강보합
유로화 가치는 보합, 엔화 가치는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상향 등으로 상승
독일도 6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90.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2.9원, 0.18% 하락). 한국 CDS 약보합

		9/12일	9/11일	전일대비			9/12일	9/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584.3	6,587.5	-0.05%	국채 금리 10y	미국	4.06%	4.02%	+4bp
	유럽	554.84	555.33	-0.09%		독일	2.72%	2.66%	+6bp
	중국	3,870.6	3,875.3	-0.12%		영국	4.67%	4.61%	+7bp
	일본	44,768	44,373	+0.89%	CDS 5y	한국	18bp	18bp	-
	한국	3,395.5	3,344.2	+1.54%		중국	38bp	40bp	-2bp
환율	달러지수	97.55	97.53	+0.02%	위험 지표	EMBI+	357	352	+5bp
	유로화	1.1734	1.1734	0.00%		VIX	14.76	14.71	+0.34%
	엔화	147.68	147.21	-0.32%		WTI유	62.69	62.37	+0.51%
	위안화	7.1250	7.1186	-0.09%	원자재	구리	458.9	459.1	-0.04%
	원화	1,395.4	1,390.7	-0.34%		금	3,643.1	3,634.1	+0.2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9월 소비심리 4개월래 최저, 주요 IB들은 연준 금리인하 속도 가속화 예상

- 미시간대 9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55.4로 전월(58.2) 및 시장 예상치(58)를 모두 하회.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8%로 변동이 없었으나, 장기는 3.9%로 0.4%p 확대. 현재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경제여건지수는 61.2로 0.5p 하락,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51.8로 4.1p 급락
- 미시간대는 저소득 및 중산층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소비자들은 경기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여러 취약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
-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완화하는 인플레이션과 약화하는 고용시장을 주시하면서 중립금리에 보다 신속하게 도달하려 할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5bp 연속 금리 인하를 예측
- 도이체방크는 물가와 고용 여건이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리스크 요인들이 추가 인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Fitch, 프랑스 신용등급 'AA-'에서 'A+'로 강등. 등급 전망은 '안정적' 부여

-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은 프랑스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하고 '29년까지 재정적자의 GDP 대비 3% 이하 축소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

■ 우크라이나, 러시아 석유시설 드론 공습. 미국은 새로운 對러 제재 경고

- 우크라이나는 12일 발트해 연안의 러시아 석유수출 거점을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외신이 보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22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종전을 위해 G7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의 국유자산을 압류하여 우크라이나 방위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

■ 미국 의회예산국(CBO), 올해 미 성장률 전망 하향, 인플레 전망은 상향

- CBO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제시하며 1월 전망(1.9%)보다 0.5%p 하향. 개인소비지출물가(PCE)는 3.1%로 기존 전망 대비 1%p 상향하고, 실업률은 4.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 다만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세법 덕분에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관세 인상 효과가 약화하면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 ECB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 입장

- 나겔 총재는 ECB의 11일 금리 동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거의 부합했기 때문이며, 추가 금리는 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이라는 입장

■ EU,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 완화 가능성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언급하며 탈탄소화 과정에서 전기차만 고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집행위도 내년으로 예정됐던 '35년 자동차 탄소 감축 계획 중간 점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언급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유럽 동부전선 경계 대폭 강화 착수

- 뤼터 NATO 사무총장과 그린케위치 유럽동맹 최고 사령관은 12일 북극권에서 지중해 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동부전선 일대의 경계를 대폭 강화하는 '이스턴 센트리'를 개시한다고 발표
- 한편 폴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드론 숫자와, 영공 침범이 이뤄진 시간 등에 비추어 실수일 수 없다고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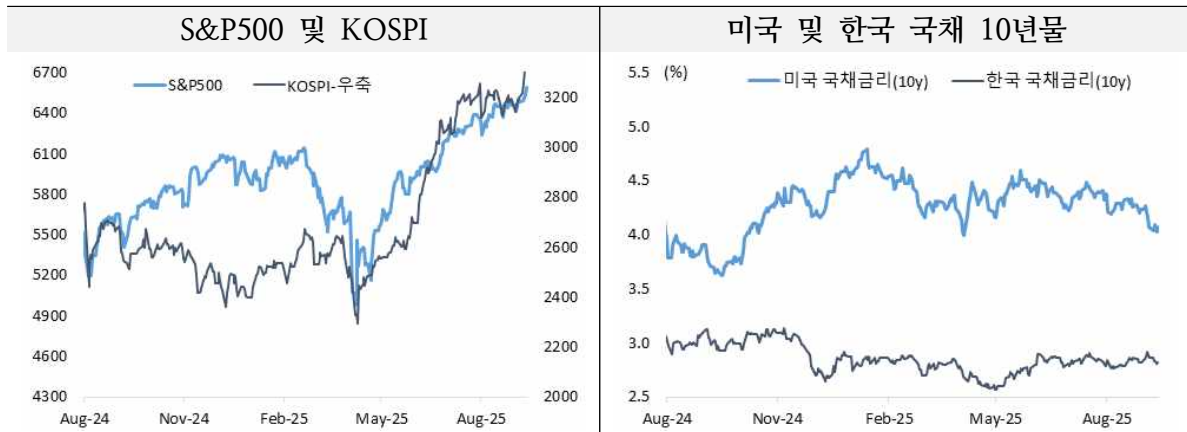
■ S&P,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 민간 부문의 10년에 걸친 디레버리징으로 스페인의 대외 대차대조표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경제 충격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력이 높아졌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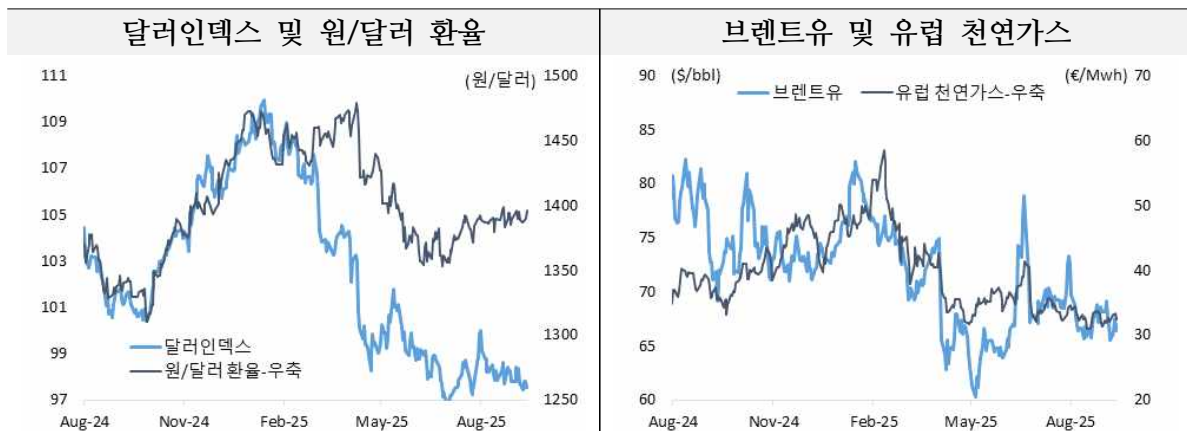
■ 유엔총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이행지지 결의 채택

- 유엔총회는 지난 7월 프랑스와 사우디 주도로 채택한 '뉴욕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142개국 찬성으로 가결. 뉴욕 선언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 로드맵을 담고 있음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E-mail jsch@kcif.or.kr